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1년도 제13호

### 시사포커스

####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문화

글 / 박성률 트레이닝과학연구소장 · 부경대 겸임교수

### 기자칼럼

#### 최속현 선수 죽음 산재 인정이 스포츠계에 던진 과제

글 / 김영민 경향신문 기자

### 인터뷰

#### 이제는 장애인 스포츠 인권문제도 들여다보아야 할 때

글 / 송규진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실 운영위원장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운동, 1인당 연간 40만원 의료비 절감 효과”

『 한국체육학회 』

“학교운동부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선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5개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 』

“초등학교 대상 ‘가상현실 스포츠실’ 운영”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박성률

트레이닝과학연구소장, 부경대 겸임교수

#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문화

과거 우리 학교체육은 국가주의적, 승리지상주의적 체육정책과 맞물려 인권 친화적이기보다는 '인권 방치' 또는 '인권 침해' 환경을 조장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으로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들은 연습과 대회 출전으로 박탈당했던 학습권 보장과 더불어서 과도한 연습, 폭력 등의 신체적, 정신적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었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학생선수들의 스포츠인권이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가 제도의 도입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형태와 의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문화가 정착되려면 학교체육진흥법이라는 제도 아래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체육지도자의 의식 변화와 전문성 제고가 뒤따라야 한다.

체육지도자는 학생선수의 인권을 존중하며 교육자, 상담자,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골고루 수행해야 한다.

또한 체육지도자는 종목별 특성에 따라 학생선수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법과 전략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 종목의 경우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습과 상담을 실시해야 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에 주의해야 한다. 단체 종목은 팀원 간에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스포츠맨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기 종목에서는 부상 예방을 위한 대책과 선수시절 체득한 경험에서 벗어나 과학적 근거중심의 훈련 방법의 적용이 중요하며 공격성을 조절할 수 있는 인성교육도 주기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아울러 체육지도자는 연습과 경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학생선수를 지도·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시기별 훈련 목표, 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학생선수가 자기 주도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우수선수뿐만 아니라 비우수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동기 부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팀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부당한 처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경기 전, 중, 후에 상대 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언행을 보임으로써 학생선수들이 체육지도자의 이 같은 행동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도록 해야 한다. 연습과 경기시간 외에도 부상, 학업, 진로 등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건강과 체력상태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와 협업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같이 인권 친화적 체육지도자는 학생선수들이 경쟁에서 승리보다는 스포츠를 통해 사회성과 도덕성을 기르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특히나 학생선수들을 지도하는 전문체육지도자에게 비현실적일 수 있다. 승리를 통한 보상이 너무나 큰 현재의 체육특기자제도 아래서는 지도자나 학부모 모두가 교육적 가치보다는 스포츠를 통한 진학과 취업, 연봉 획득이 더 중요한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체육지도자들이 승리에 집착하지 않아도 생계를 보장받고 명예로운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영민 기자  
경향신문

# 최속현 선수 죽음 산재 인정이 스포츠계에 던진 과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최속현 선수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근 만장일치로 최 선수의 죽음을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판정했다. 팀내 가혹행위로 정신적 압박감이 가중되며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적응장애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 업무 연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스포츠계에서 직장 내 왕따·괴롭힘·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산재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그간 개인 간 문제로 여겨졌던 스포츠폭력을 사회문제로 바라보는 전기가 마련됐다.

판정위는 최 선수가 직장에서 당한 가혹행위를 죽음의 원인으로 봤다. 소속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독·선배 등의 상습적인 폭행·강요·따돌림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최 선수가 성적에 따라 연봉 삭감이나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는 연봉계약직 실업팀 선수라는 점도 주목했다. 경주시체육회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온 최 선수가 직업 불안정 탓에 받은 업무상 부담 또한 사망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성적 때문에 늘 지도자나 선배·동료들 눈치를 보고 훈련시간 외에도 통제를 받은 점도 감안했다. 이 모든 것이 직장과 업무 현장에서 빚어진 일인 만큼 최 선수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판단한 것은 당연하다.

이번 산재 인정으로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인 가해자들의 혐의가 업무상과실치사로 바뀔 수 있다. 검찰은 이 전까지 가해자들에게 최 선수의 죽음과 직접 연관이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인사·노무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경주시청, 대한철인3총협회, 대한체육회 등 상급 기관에 대한 노동 관련 법 위반 여부도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면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최 선수가 숨진 후 스포츠계 인권침해 신고와 처벌을 강화한 '최속현법'이 만들어지고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됐다. 하지만 스포츠폭력의 근원인 성적 중심의 시스템은 여전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직장팀뿐 아니라 학교 운동부 안의 폭력적 통제 관행을 규제·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스포츠계의 잘못된 위계 문화와 성적지상주의가 근절되지 않는 한 또 다른 비극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번 산재 인정은 선수를 팀의 부속품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송규진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실 운영위원장

# 이제는 장애인 스포츠 인권문제도 들여다봐야 할 때

스포츠는 선후배라는 서열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 인권을 유린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개는 숨죽여 산다. 최근이야 스포츠내에서 문제들이 부각되고, 그들의 인권을 새롭게 들여다보고 있다.

장애인 스포츠는 어떨까. 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창구가 절실하다. 제주에서는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이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다. 발전포럼은 일반인들에게겐 익숙하지 않고, 낯선 이름이지만 활동폭을 차츰 넓히고 있다.

발전포럼은 지난 21일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실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며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문제 해소를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를 이끌어갈 신임 송규진 위원장(제주YMCA 사무총장)은 "지금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송규진 위원장은 제주에서 30년간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다. 그가 장애인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지난 2019년 제주에서 열린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때였다.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면서 장애인 이동권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다. 그러다 장애인스포츠 인권문제도 더 많이 알게 됐다고 한다.

"장애인 이동권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과 연결이 됐어요. 장애인스포츠인 경우는 장애인체육회에서도 구체화 되지 않았던군요. 발전포럼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포럼의 인권상담실 운영위원회 위원장까지 맡게 됐군요."

그는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장애인스포츠의 인권을 들여다보는 창구로서 포럼의 인권상담실 역할이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스포츠는 선후배 관계로 매우 엄격합니다. 서열에 따른 문제로 인해 인권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프로 세계에서도 그럴 정도로 스포츠내 인권문제는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 장애인들은 잘 표현을 하지 않아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요합니다."

발전포럼의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실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송규진 위원장은 길지는 않지만 짧지도 않다고 한다. 2년 사이에 충분히 할 일이 있단다.

"인권상담실은 제도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올해 내로 장애인스포츠 인권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인권상담실이 제도권내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울러 장애인스포츠인들의 쉼터도 조성하려고 합니다. 2년 임기내에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희망합니다."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은 아직도 낯설다.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우선은 알리는 게 필요하다. 송규진 위원장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다.

"올해 8월이나 9월 사이에 장애인체육인과 관련된 박람회를 준비중입니다. 도민 대상 박람회인데, 박람회를 통해서 인권상담실에 대한 인지를 높이고, 찾아가는 상담활동을 한다면 입으로도 전파가 될 겁니다."

한편 장애인스포츠와 관련된 어려움을 호소하고 싶은 이들은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064-721-2994)의 문을 두드리면 된다.



# 운동, 1인당 연간 40만원 의료비 절감 효과... 어디 그뿐이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력100'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만 11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복지 서비스다.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을 측정한 뒤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해준다.

얼마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KISS)이 운동효과를 의료비 절감액으로 계산한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연구는 과학원이 2013~2017년 5년간 국민체력100 참여자 중 자료 이용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청구자료도 활용됐다. 국민체력100 참여자 1325명, 이들과 동일한 성별, 연령 기준으로 비참여집단 265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비교했다. 전년도와 이듬해 연간 의료이용 패턴 변화를 비교한 결과, 국민체력100 참여집단은 총 의료비가 7만6768원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비참여집단은 47만9101원이 늘었다. 두 집단 간 차액이 연간 약 40만원이다. 공단은 "국민체력100 참여자가 30만명(2019년 기준)"이라며 "연간 약 1200억원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체력인증센터는 전국 75개소가 있다.



<http://14.49.46.105/front/member/memberCheck.do>  
국민체력 100 회원가입 링크

# 학교 운동부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선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5개 방안

최근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 운동부 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폭넓게 논의됐다. 지난 23일 열린 '2021 체육주간 기념 학술대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5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일회성 개선안이 아니라 폭력 자체를 근절하는 단기 안부터 진로 폭을 다양하게 넓히는 중장기 안까지 거론됐다.

단기 안으로 주목을 끈 것은 협의체 구성이다. 학생 운동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폭력 근절에 모두 힘을 보태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 지도자, 부모, 교사, 교장이 협의체를 구성한다. 학교 밖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사법부, 대한체육회 등이 머리를 맞댄다. 이걸 잘 한 게 싱가포르다. 정호진 교수(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 국립교대 체육교육과)는 '학교폭력없는 스포츠, 안전한 스포츠 환경:싱가포르 사례'라는 발제에서 "싱가포르에는 싱가포르 체육회, 교육부, 사회가족부, 경찰청, 종목별 협회, 선수협의회, 장애인선수 대표단, 코치대표단, 법률대표단 대표자들로 구성된 세이프스포츠위원회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세이프위원회는 인식, 예방, 사건처리, 징계절차 등 4단계로 폭력 발생 및 예방을 위한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도자 평가 기준과 자격증 개선안도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송지환 교수(전주교육대학)는 "오직 성적과 메달로 자신의 성패가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는 지도자와 학생 선수 모두 예민해지면서 폭력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평가지표 다양화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지도자가 지속적인 재교육에 이은 철저한 평가로 자격증을 갱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현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큰 제한 없이 누구나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다"며 "합격자 수를 줄이더라도 자격증 응시자격을 강화하고 지도자 능력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타깃이 된 것은 특기자제도다. 특기자제도는 사실상 대회 성적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정현우 위원은 "운동만 잘해도 대학에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며 "40년 전 마련된 제도다. 지금 상황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이 특기자를 뽑을 때 학업 성적 비중을 높인다면, 초중고는 학업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송지환 교수는 "학생선수는 조기 전문화 길로 들어섰다고 봐야 한다"며 "학생선수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습과 운동 병행을 위해 시설, 환경이 선형적으로 완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춘옥 교사(인일여자고등학교)는 "좋은 운동 환경이 마련돼야 운동시간을 줄이고 학습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도자가 과학적인 선진 지도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이를 지도자 개인 책무로만 보고 양질의 시설 완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학습과 운동은 병행하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학생선수의 진로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손지환 교수는 "학생선수가 나갈 수 있는 진로 폭이 너무 좁다 보니 심지어 동료도 경쟁자가 되고 지도자와 학생선수 모두 대회 성적에만 매달린다"며 "이런 구조를 개선해 진로 다양성, 직업 안전성을 높여야만 운동에만 매달리면서 체벌까지 감수하는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로 다양화는 스포츠 산업화없이는 불가능하다. 스포츠를 산업화해야 돈도 돌고 일자리도 생긴다. 정부가 스포츠를 복지를 넘어 산업으로 보고 정책을 마련해야 탈출구가 생긴다.

이날 축사를 한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학술대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정책을 반영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쓰겠다"고 말했다.



## 문체부, '가상현실 스포츠실'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초등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5세대 이동통신(5G)을 기반으로 비대면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융·복합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하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운영한다.

문체부는 미세먼지, 폭염으로 인해 실외 체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에 대응하고자 스포츠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 기술'을 개발하고, 2017년의 10개교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전국 361개교 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를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의 통합 온라인 체제(플랫폼) 형태로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지원한다. 통합 온라인 체제에서는 연계망(네트워크)을 활용해 전국 학교 간 실시간 대항전을 개최할 수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학교 간 대면 교류 활동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통해 비대면 스포츠 교류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융·복합 스포츠 콘텐츠 123종을 제공해 더욱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매년 새로운 흐름을 반영한 신규 콘텐츠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기존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설치한 학교에 통합 온라인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등학교 100개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3~4월에 희망 학교를 1차로 공모했으며, 5~6월에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과 가상현실 스포츠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 있는 '스마트스포츠체험관'에서 초등학교 관계자와 시민들이 직접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아름다운 경쟁X공정한 세상" 서울시교육청, 생활속 스포츠가치 실천 선언식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104260100208270013682&servicedate=20210425>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스포츠 인권 개선 모색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618829998543552062>

경륜·경정 스포츠 심리 상담 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http://mksports.co.kr/view/2021/377274/>

제주, 학교폭력 예방 CCTV 설치..교육청은 시큰둥

<http://www.jibs.co.kr/news/replay/viewNewsReplayDetail/2021042421214273559?feed=na>

•[사설] 최속현 선수 산재 인정, 체육인도 근로자 인식 계기돼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22000542>

베이징 올림픽 공동 보이콧 이슈로 번진 미·중 갈등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5/2021041502565.html?utm\\_source=na](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5/2021041502565.html?utm_source=na)

[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5/202104150256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학생선수 폭행 일삼은 지도자 A씨 해당협회 제명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70636>

e스포츠, 도쿄 올림픽 사전 행사로 채택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54991&isKin=esport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경기학생스포츠센터 현장 방문 진행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22866>

양구군수, "스포츠 비리 의혹 일제 감사...구조까지 개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69734&ref=A>

제주스포츠과학센터, 서귀포시 선수 출장 체력 측정 지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231645395614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231645395614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 체육시민연대

##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